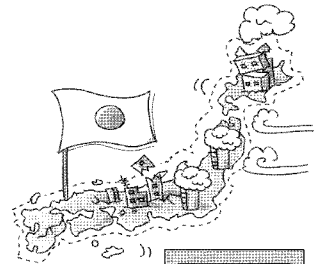




## 日, 위기에 처한 자판기 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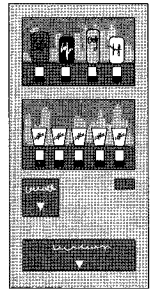
- 자판기업계도 지진 피해 영향권 -
- 자판기 수출길 열릴지도 -

자료제공 : KOTRA



### □ 100엔 자판기 보급 위기

- 자동판매기 음료의 가격 인하 경쟁이 일시 정지 상태에 접어들었음. 캔 하나당 평균 120엔에 판매하는 통상적인 자동판매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년간 저가 판매를 주무기로 하는 100엔 자동판매기의 보급 활성화 바람이 불었으나, 최근 들어 도입이 정지된 상태임.
- 자판기 설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이며, 이에 더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청량음료의 수급이 팽팽해진 것이 배경임. 자판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여름의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가격 인하를 보류한 측면도 있다고 함.



### □ 신규 설치 중단사태

- 자판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하치요([www.hachiyoh.co.jp](http://www.hachiyoh.co.jp)) 관계자에 문의 결과 2010년은 도쿄도 내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5% 증가한 수치인 1만2000대 정도였으

나, 2011년에 들어 100엔 자판기의 신규 설치를 중단했다고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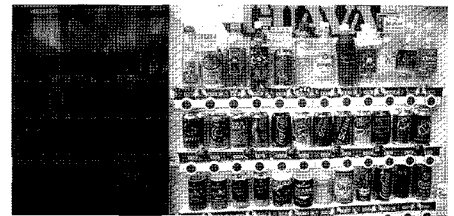
- 2010년에 100엔 자판기 보급을 약 7% 증설시킨 유카([www.yukanet.co.jp](http://www.yukanet.co.jp)) 담당자도 같은 답을 주었으며, 2011년에는 신규 100엔 자판기 설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함.
- 자판기 운영 회사는 설치 담당 업체에 수수료(자릿세)를 지불하는데, 매출의 20~25% 선이 통례이나, 입지 여건이 우수할 경우는 경쟁이 치열해져 설치 비용도 상승하게 되며, 실제 35%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.



100엔 자판기 전용 코너

### □ 지진 피해로 재고 확보 곤란

- 지진 후에 발생한 청량음료의 품질사태도 배경으로 꼽힘. 주요 뚜껑 제조사인 니혼크라운코르크([www.ncc-caps.co.jp](http://www.ncc-caps.co.jp)) 및 니혼야마무라가라스([www.yamamura.co.jp](http://www.yamamura.co.jp)) 공장이 큰 피해를 입어서 복구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으나 4월 중순경의 복구 시점까지의 뚜껑 공급량은 전년 대비 25~30% 감소했음.
- 일부 음료 제조사의 공장도 생산을 정지했음. 인료소우켄 담당자는 뚜껑 등 소재 제조사의 피해 영향으로 지난 3월의 청량음료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0~20%에 달할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고 함.
-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로 자판기 설치 회사는 물량 확보가 곤란해졌으며, 비상사태 시에는 매장 공급이 우선시되기에 자판기 업계에서는 재고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언급함.
- 실제 시장 조사 결과, 보통 자판기 1대당 약 30종 존재하던 음료수의 종류가 3분의 1로 감소했으며, 저가의 수입 음료 종류를 대폭 늘린 자판기도 존재했음.



수입산 음료 자동판매기

### □ 시사점

- 지진 피해 및 수수료 증가로 인해 현 상태로는 100엔짜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경비만 100엔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판기 음료 가격 인하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업계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.
- 일본 국내의 자판기는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, 시장 점유율 1위는 인도네시아산이나, 국내 기업도 성능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키워 수출시장 확대로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측됨.
- 설치 공간의 문제와 소자고령화 문제도 있어 자판기의 일본시장 성장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갱신에 따른 수요 발생 여지가 있기에 향후도 수입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.

<자료원 : 일본경제신문, 일간공업신문, 경제산업성, Gfk 마케팅서비스 및 코트라 도쿄 KBC 자체 자료 등>